

지역 소식통

정읍시, 빅데이터 활용 과학적 행정서비스 주목

정읍시가 사업 입안 기초자료 활용과 시정 주요 정책 마련을 위해 '정읍시 1인 가구' 특성을 빅데이터 분석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으로 향후 행정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읍면동별·성별·연령별 1인 가구와 1인 가구 주거 형태·혼인상태·교육 정도, 65세 이상 1인 가구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0년 대비 총인구는 17.6% 감소했으나, 1인 가구는 62.7% 증가했고, 3인 이상 가구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정읍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2.9%이며, 지역별 1인 가구는 수성동이 가장 높고 다음이 내장상동과 신대인읍, 초산동 순이다.

1인 가구 거주자 중 연령별로는 70대, 80대 이상, 60대, 50대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40~65세 1인 가구 비율이 최근 8년간 증가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무료 와이파이가 'ปัง'

정읍시가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했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타고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통신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대표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시가 2억원을 투입해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발주 추진했다.

이번에 확충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는 내장산 상가 지구와 관광안내소(매표소), 탐방안내소, 내장사 등 모두 4개 소다.

이로써 현재 정읍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109개소로 늘어났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향기도시 조성 잔걸음

'향기 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부서별 '머리맡대' 협업 통해 향기 자원 중점분야별 실행전략 구체화

정읍시가 사계절 향기와 매력 넘쳐나는 새로운 힐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향기를 주제로 힐링과 치유를 산업화하고, 향기 산업을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새로운 힐링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시는 30일 향기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향기 도시(향기 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관련 부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향토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향기 자원 중점분야별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토자원에 대한 새로운 산업체계를 구축해 향후 10년 뒤 정읍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날 워크숍은 농업, 관광, 산업화, 도시재생, 브랜드화 전략과제의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부서별로 구상한 신규시책과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업에 대해서도 정읍 향기 도시(향기 산업) 발전전략 연구용역 관련 부서 워크숍을 가졌다.

주요 의견으로는 ▲향기공화국 브랜드화를 위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 방안 ▲향기 도시 건설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방안 ▲실효성 있는 향토자원(경관 작물) 확대 방안 ▲향토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육성 방안 ▲도심권과 향기 자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연계방안 ▲향기 자원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전략 방안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기업체 기술이전 방안 ▲향기산업 중장기 선순환 구조 체계 구축 및 산업화 육성 로드맵 전략 방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정읍의 고유한 지리적·기후적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정읍민의 강점을 살리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은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향기 도시 건설을 위해 연구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의 장을 열게 됐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향기 공화국 정읍 조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김중문 씨 자택에 명패 부착

정읍시는 보훈 정신을 널리 홍보하고 계승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시와 국가보훈처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시는 30일 초산동에 거주하는 월남참전지회 정읍지회장 김중문 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명패를 달아 드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최정길 서부보훈지청장, 관계 공무원, 유족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중문 씨는 1972년 6월 백마부대원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지난 6일에는 월남참전지회 정읍지회장에 임명되었으며, 국가보훈과 지



역발전에 목욕히 헌신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직접 명패를 달아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원전안전교부세 신설' 공동대응

전국 16개 지자체 원전동맹... 국비지원 한목청

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원지력 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첫 원전동맹 결성 이후 이날 대전 유성구, 전남 합평군, 전남 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합류하면서 전국 16개의 지자체의 가입이 완료됐다.

회원 지자체에 소속된 주민은 314만 명으로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된다.

앞서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km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km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인근 16개 지자체가 국가사 무인 방사능방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 구조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자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원전동맹은 먼저 '원지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지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29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 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센터장 남해경)'이 기증한 전통건축 양식의 정자 '근민정(近民亭)' 현판식이 열렸다.

고창군청 광장에 명품쉼터 '근민정' 탄생

고창캠퍼스 한옥기술인력양성사업단 고창군에 기증

대한민국 최고의 한옥 명장을 꿈꾸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이 고창군청 명품쉼터(천연기념물 503호) 옆에 멋들어진 전통건축양식의 정자 '근민정(近民亭)'을 만들어 고창군에 기증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9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 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단(센터장 남해경)이 기증한 전통건축 양식의 정자 '근민정(近民亭)' 현판식이 열렸다.

군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여진 '근민정'은 "가장 쉽고 간편한 행정으로 군민속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노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후부터 고창은 '행정'은 모를지간 편하고 쉬어야 한다는 정치철학으로 모양성 안 옛 고창현 동헌의 현판도

평근당(平近堂)이었다.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도 "군민들께서 알기 쉬운 공감행정과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의 "평이근민(平易近民)"을 군정철학으로 삼고 있다.

'근민정' 현판은 아전 하관수 선생의 글씨와 풍가 김병욱 전 상하면장의 서각으로 완성됐다. 특히 안상섭 교수 면민회장이 나무 구입에 애썼고, 김원봉 전 평통 고창군협의회 회장 전순중 덕산이장 등 수많은 군민들의 정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청 조경호 재무과장은 "시원한 명품쉼터 나무그늘 아래 지어진 근민정(近民亭)이 군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행정기관의 딱딱한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대별 배수펌프장,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효과

계화면 공안리 약 48ha 헤택

부안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계화면 공안리 대별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계화면 공안리 일대 약 48ha 일대 농경지 침수피해가 줄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화면 공안리 일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대가 낮아 매년 적은 강수량에도 농경지가 침수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계화면 공안리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에 지원해 지난 2월초 착공해 6월 말 사업을 완료했다.

대별 배수펌프장은 계화면 공안리 약 48ha 농경지 일대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배수공(공안리천)의 물을 용수당(계화지선)로 담수해 주상천으로 분당 66의 빗물을 빼낸다.

사업 시행 이후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면서 계화면 공안리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인 농경지 침수 문제를 배수펌프장 가동을 통해 해결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매년 적은 강수량에도 침수되는 계화면 공안리 농경지 일대가 배수펌프장 가동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